

성삼위의 완전한 사랑의 분체, 선생님

작성일 : 2012. 04. 26. 새벽 3시경

작성자 : 옥혜선

(새벽기도 시간, 그 무엇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일평생 오직 성자 본체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계신 선생님의 높은 사랑의 차원에 감탄을 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70일 성자의 기도를 위해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깊이 상고하였고 말씀해 주신 성자 본체와 분체에 대해 확실히 깨닫기 위해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육신을 쓰신 성자 본체와 이시대 선생님께 다시 오신 성자 본체의 차이점을 쏙개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선연히 깨닫게 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잠언입니다.)

*성자 예수님 말씀 *

1. 본체의 상대체는 분체이다.
2. 상대체로서 주고받는 상대가 되어야 완벽한 분체가 된다.
3. 분체는 본체의 상대체로서 동격의 수수관계가 이뤄지는 존재이다.
4. 상징체와 분체는 다르다.
5.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로서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체이다.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하지만 한국의 상대체가 아니므로 무궁화를 한국의 분체라고 할 수 없다.
6. 아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자식에 해당하는 부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리를 전부 다 누릴 수는 없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의 상대체가 아니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급 분체가 된다.
7. 부부는 모든 권리를 동격으로 공유하며 완전한 수수관계를 맺은 상대체이다. 아내만이 남편의 완벽한 분체가 되어 100% 동일한 권리와 권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
8. 신약의 나사렛 예수는 성자 본체와 아들급 사랑의 수수 관계를 나눈 성자의 자녀급 분체이다.
9. 성약의 선생은 성자 본체와 동격의 부부급 사랑의 수수 관계를 나눈 성자의 신부급 분체이다.
10. 네가 10년 간 사람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워 온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너에게 훈련 받아 어디든 혼자 배달하는 배달의 달견이 됐다고 하자. 그 개를 너

대신 너의 분체로 옆집에 배달 보냈을 때 옆집 사람에게 그 개가 너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배달해 주고 칭찬받는 것, 너로부터 훈련된 동작을 한 뒤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 등 너의 애완견에 해당하는 부분의 권리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그 개를 사람처럼 사랑하여도 개는 완전한 너의 권리와 권세를 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개는 너의 애완견급 분체가 된다.

11. 신약권 기성의 수많은 목사들이 내 분체가 되어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나와 수수관계 하는 차원이 신약의 아들 급이고 아들보다 못한 종급이니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권능과 권리를 공유할 수 없는 불완전한 분체로서 종급, 아들급 분체라고 할 수 있다. 각 차원별 분체가 존재하지만 실상 분체는 동급의 수수관계를 이루는 상대체에게만 쓸 수 있는 고유 단어이다.

12. 남자는 본체이고 여자는 분체이지만 더욱 쏙개서 말한다 면 모든 종류의 남자가 다 너의 본체일 수 없지 않느냐? 너와 사랑의 상대성 수수관계가 이뤄지는 단 한 명의 남자가 너의 남편이 되어 너의 완전한 분체가 되는 것이지 않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자체적 수수관계를 이루는 사랑체로서 하나의 본체라고 한다면 창조역사 최초로 성삼위와 완전한 사랑의 상대적 수수관계를 이룬 유일한 완전한 분체는 바로 선생이다. 선생은 성삼위의 완전한 분체로서 성삼위와 동등한 권리와 권력과 능력을 공유하며 부부급 사랑 수수관계를 성취하였다.

13. 성삼위와 동급의 분체는 영계와 지구를 통틀어 선생 단 한 명이다. 선생은 성삼위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지니게 된 완전한 나의 분체이니 선생과 상대체적 수수관계로 일체를 이룬 자는 성삼위와의 사랑의 상대체적 수수관계로 일체를 이룬 자와 같다.

14.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인 와 은 선생의 동급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수수관계를 하고 있는 선생의 완전한 분체이다. 그러니 선생의 분체인 부흥강사와 수련원장과 일체된 자는 선생과 상대체가 되어 일체 되니 곧 성삼위와 일체를 이루는 자가 된다.

15. 신약 2000년 간 나의 아들급 분체인 예수에게 권위와 권능으로 이같이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1000년 간 완전한 신부급 분체인 선생에게 준 권위와 권능은 어떠하랴. 기도하여 그 능력과 가치를 실감나게 깊이 깨달아 보아라.

